

나주시, 농기계 임대 이어 '배달까지'

본격 영농기 맞아 왕복운반비 50%지원...예약 3일 전까지

화물차량 미소유 농업인 경제적 부담 절감·영농 편의 기대



나주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8일 나주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 사용이 늘면서 농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농기계 배달 업체의 왕복 운반비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그동안 임대사업소와 먼 거리에 위치해있거나 화물차량이 없어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농업인과 귀농인, 소·중소농가 등은 영농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배달(운달) 업체의 일거리 제공에 따른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배달 서비스 예약은 임대농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임대사업소 본점 내방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배달 업체(2곳) 중 한 곳을 농업인이 선택해 일정 조율 후 운송을

요청하면 된다.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배달 신청이 가능하며 '1.4톤 미만' 배달 차량에 기준, 거리와 무관하게 왕복 운반비 10만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4톤 이상의 배달 차량의 경우 거리와 농기계 중량에 따라 운반비용이 각각 상이하며 최대 25만원 내외에서 50%를 지원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업소 농기계 90% 이상이 1.4톤미만 차량으로 운반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작동 요령과 유사 시 대처 방안 등 안전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체계 강화

올해 5억9천만 원 투입...4-H 역량 강화 교육 추진

화순군이 지역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 청년 농업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화순군 4-H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자립 기반을 마련을 위해 매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비 대폭 증가...7개 사업에 5억9200만 원 투입

올해에는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7개 사업, 15개소에 5억9200만 원이 투입된다. 2018년(1억5700만 원)과 비교해 3.7배 증가한 규모다.

올해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8개소에 3억 원이 투입된다.

농사 초년생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는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 3개소에 1억5000만 원을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 기반 시설을 확충,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한다.

4개소(4-H 회원)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하는 '4-H회원 영농 정착 지원 사업', ICT 첨단 시설 설비를 지원하는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1개소 3000만 원)도 추진한다.

군은 청년 농업인의 공모 사업 참여를 유도, 지원해 영농 기반 확충과 창업 활성화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 화순 청년 농업인, 공모전에 서 두각...청년농 정착 기반 마련

지난해 전라남도가 주관한 4개 공모 사업에 화순 지역 청년 농업인 7명이 선정돼 사업비 2억92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화순군4-H연합회 회원이 지난해 열린 '전라남도 으뜸 청년 농업인'에 선정(최우수상), 사업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조사료 품질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창업을 지원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사업' 공모에 화순 지역 2개소가 선정돼 총 42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 상품 브랜드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한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공모에도 1개소가 선정, 1억 원을 지원받아 유가공 유기농 제품 생산 시설을 마련한다.

올해 전라남도가 처음 시행한 4-H 과제 공모전에서도 화순군 4-H연합회원 3명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각각 5000만 원, 35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들은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농 소득 증대 효과...화순군 4-H 육성 및 역량 강화

군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소득 증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기계 장비를 지원받은 한 농가는 생산비가 평균 10% 이상 절감되고 소득이 증가했다. 시설 토마토 청년농은 이산화탄소 발생기 지원으로 품질 향상을 이뤄내 매출이 전년도와 비교해 15% 늘었다.

화순군은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문 농업인 확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도 청년 4-H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벼농사, 밭작물(과수 포함), 축산, 시설원에 4개 품목은 품목별 모임을 결성해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신기술을 보급하고 회원 활동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4-H연합회는 영농4-H 90명, 학교4-H 87회 186명, 4-H본부 1개회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화순군 4-H연합회 회원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2월 현재 296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159% 증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제11기 명품농업대학 입학식

시설원예전문가 과정 개강

곡성군이 9일 곡성 군민회관에서 시설원예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11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제11기를 맞는 곡성군의 농업전문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시설원예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1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입학식에는 입학생 및 관계자 35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설원예전문가 과정은 멜론, 딸기 등 곡성군 시설원에 주요 작목에 대한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과 현장교육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어느 때보다 그 성과가 기대된다.

곡성명품농업대학장 유근기 군수는 "교육생 여러분의 의욕적인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2011년부터 운영된 곡성명품농업대학은 그동안 한우, 양봉, 농식품가공 등 15개 과정에서 57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8일 당대교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과 상인회장, 구례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이 구례5일시장에 문을 연 플래그십스토어 '구례모아' 개점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중기청 제공)

구례5일시장에 플래그십스토어 개장

'구례모아' 개점

지난해 극심한 침수 피해를 본 전남 구례5일시장이 수마의 상흔을 치유하고 지역 첫 플래그십스토어 '구례모아' 개장을 통해 활기를 더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8일 구례5일시장에서 '플래그십스토어 구례모아'개점 행사와 입점 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플래그십스토어는 기업의 주력 상품을 뜻하는 용어다. 특정 상품 브랜드를 매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의 공간을 지칭한

다. 구글스토어,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등이 대표적이다.

구례군에 처음 문을 연 플래그십스토어 '구례모아'는 지난해 8월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구례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중기청이 개설했다. 고객여 상품을 직접 보고 QR코드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시장이다.

매장에는 구례5일시장 상품과 구례군 특산품으로 채웠다. 지난 3월 구례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해 선정된 총 48개 업체 175개 품목을 판매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대전면분회

올해 첫 정기총회...33곳 경로당 참여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대전면분회는 9일 대전면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종대 대한노인회 담양지회장, 이홍식 대전면분회장을 비롯한 33개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적극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지난해 결산보고, 올해 노인회 사업계획 논

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홍식 대전면분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도 수고해주신 모든 회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돼 예전처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